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강영봉**

<차례>

- I. 서론
- II. 제주어의 연구 의의
 - 1. 방언 자료집 발간
 - 2. ‘제주어’ 명칭 사용
 - 3. 남부어와 북부어의 구분
 - 4. 제주어와 외국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
 - 5. 언어 수필 개척
- III. 과제
 - 1. 외래어와 비교
 - 2. 어원의 문제
- I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수필』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의 제주어 연구 의의는 첫째 해방 이후 한국인으로서의 최초로 방언집을 출간하였다는 점, ‘제주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 이 글은 2011년 10월 7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한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을 조명하다」는 주제로 열린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길고 더하여 논문 형식으로 고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분한 점, ‘제주어’와 다른 방언 나아가 외국어와 비교한 점, 그리고 ‘제주어’를 소재로 한 이른바 언어 수필을 썼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이는 ‘해방 후 먼저 우리말을 찾고자’ 하는 석주명의 확고한 언어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제주어를 같은 어족에 속하는 몽골어와 만주어 이외의 언어와 비교한 점은 비전공자가 지니는 한계이며, ‘비바리, 심방, 늬뻬’의 어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는 후학들이 검증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긴 하였지만 다각적으로 ‘제주어’를 연구한 선구자적 의의는 자못 크다.

주제어 : 제주어, 석주명, 비교언어학, 어원, 몽골어, 제주문화.

I. 서론

석주명(石宙明)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 여를 제주도에 머물면서 정열적인 활동으로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제주도 관계문헌집』, 『제주도수필』, 『제주도곤충상』, 『제주도자료집』 등 6권의 ‘제주도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글의 주제인 제주어¹⁾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수필』이 해당된다.

『제주도방언집』은 7,012개 어휘 목록인 제1편, 『제주도방언과 전라도 방언의 공통어』를 위시한 17장의 고찰편, 287개 항목의 제주어 『수필』이 제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자료집』에는 「제주도방언 수필 보유」를 비롯하여 「제주도의

1) 여기서 ‘제주어’는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제주도방언’이나 ‘제주방언’이 쓰인 저서나 논문인 경우는 원용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제주어’라는 용어를 쓴다.

식물명』(546개), 『제주도의 동물명』(359개), 『농업 관계의 제주어』(586개), 『임업 관계의 제주어』(87개), 『목축 관계의 제주어』(325개), 『해산(海産) 관계의 제주어』(116개), 『한자의 제주명』(199개), 『제주도의 동리명』(185개), 『제주도방언 중의 조선 고어』(338개),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몽고어 184개 · 일본어 49개 · 중국어 41개 · 마라어 33개 · 만주어 16개 · 비도어 15개 · 안남어 12개), 『제주도방언과 馬來語』(33개), 『제주도방언과 比島語』(12개), 『제주도방언과 安南語』(12개) 등이 제주어와 관련된다. 한편 『제주도수필』에는 『방언』 항목에서 41개의 수필을 실고 있다.

이 글은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II. 제주어의 연구 의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하여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해방 이후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방언 자료집을 발간한 점, 둘째 ‘제주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셋째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하여 수록한 점, 넷째 제주어와 외국어 또는 제주어와 다른 방언을 비교한 점, 다섯째 언어를 소재로 수필을 썼다는 점 등이다.

1. 방언 자료집 발간

본격적인 방언 어휘집은 1944년 일본인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에 의해 『조선어방언의 연구』(상)가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고오노

로쿠로(河野六郎)의 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947년 서울신문사출판부에서 발간된 『제주도방언집』은 한국인에 의한 첫 번째 방언자료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언 자료집은 ‘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 여를 筆者는 濟州島에서 生活할 機會를 가졌”고 이때 수집한 약 1만 매 카드를 “內面的으로 틈틈이 整理하다가, 8월 15일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은 表面에 내놓고 整理에 奔忙하였었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들어와서야 脫稿하게 되었으니 이 일은 전후 5개년에 亘하여야 된 것”(석주명, 1947: 3)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의 글 <국학과 생물학> 중 ‘4. 방언과 곤충’(석주명, 1991: 81-82)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만 2개년만에 수집한 단어는 7천이 되어 일단락을 지었고 그 때는 해방되는 해라 차차 시국이 달라 감을 깨닫고 5월에는 그만 귀경하였다. 수집된 단어의 수는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리하면 有意義한 것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지방 곤충상 상호간의 유연 관계(Affinities)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其 어휘 중에서 全羅道, 慶尙道, 咸鏡道 및 平安道の 諸 방언과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서 其 百分比를 산출해 볼 뿐만 아니라 諸 방언 상호간의 유연 관계를 음미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제주도방언과 가장 유연 관계가 깊은 것은 전라도방언인데 양자간의 공통어휘는 불과 5%이어서 제주도방언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방법은 별로 독창적의 것은 아니고 곤충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이나 방언 연구에 응용한 데에 의의가 있었고 필자가 감히 전문외의 학문에 손대게 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제주도 곤충 조사와 제주도방언 내지 제주도 조사 간에는, 좀더 크게 말하면 나의 곤충학과 제주도 간에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 蝶類의 진상은 제주도의 전모를 구명함에 있어서 더욱 잘 인식되는 때문이었다.”²⁾는 것이다.

이 방언 자료집의 가치는 <서울신문> 1948년 3월 12일자 방종현(方鐘鉉) 서울대학교 교수의 감동적인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년 벽두에 조흔 책이 나왔다.

방언은 즉 우리말의 일부분이요 다만 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반드시 이 방언의 중요함을 느끼는 것이니 사라서 활용되는 실제어를 응용할 수가 있고 죽어서 이미 문헌화한 고어(古語)를 이것에 의하여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이 다른 이 동물학자의 손에서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제주도의 방언이 집대성된 것은 과연 경탄을 마지안는 일이며 또 이 방면 전문가에게도 크게 충동을 주었스리라고 믿는다.

이 책은 단순히 방언학자가 꾸민 방언집만이 아니다 그 목차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거니와 제1편 방언집이요 제2편이 방언의 고찰이요 제3편이 방언의 수필로 되어 그 방언집에서 우리는 제주도방언의 사전으로 이것을 인용할 수 있스며 그 고찰에서 우리는 다른 방언과 비교의 결과를 엿볼 수가 있고 그 수필에서 우리는 흥미있는 가운데 이 방언의 지식을 자세히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 방언집이 우리의 방언학에 장차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귀하다 어휘며 음운 방면은 물론이요 제주도방언의 문법 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조성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가치 우리에게 학적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실로 귀하다고 할 것이다.

쫓트로 이 방언집의 맨마지막 페이지에 실려있는 수필단어 한 개를 그대로 소개하고 이것을 마추려고 한다.

호미. 제주어로 「호미」라면 육지의 「낫」(鎌)을 의미하고 조선 어민이 혼

2) 인용은 띄어쓰기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

히 쓰는 「호미」는 제주도에는 없다 육지서 쓰는 「호미」와 같이 쓰고 형상도 근사(近似)한 것은 「굴개」 혹은 「굴갱이」란 것인데 호미의 날이 자루와 같이 좁게 되어 갈고리 비슷이 되어있다. 돌이 많고 흙이 輕鬆(경송)한 곳에서 제초하는 데는 이 형상이 유리할 것이므로 자연 이런 변형의 농구가 생겼을 것이다

이와갓틈으로 이 방언수필은 동시에 제주도 일반을 알려는 이의 조흔 재료도 된다.(이병철, 2002: 187-189면에서 재인용함)

또 이 방언 자료집은 어휘 배열을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 가운데 하나다. 오쿠라 신페이의 『조선어방언의 연구』(상)는 천문·시후·지리/하해·방위·인륜·신체·가옥·복식·음식·농경·화과·채소·금석 등의 순서로 어휘를 나열하였다. 이는 『훈몽자회』 『신증유합』 『정몽유어』 『통학경편』 등의 자회류, 『조선관역어』 『역어유해』 『왜어유해』 『동문유해』 『몽어유해』 등의 유해류, 『재물보』 『물명고』 『물보』 등의 물명류처럼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어휘를 나열하고 있어서 찾고자 하는 어휘를 찾는 데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방언집』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아주 편리하다.

나아가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집』 ‘후기’에서(석주명, 1947: 136) “3 동시에 半島代表諸地의 방언사전을 작성하여 비교연구에 편케해야 한다.”라 기술하여,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피력함으로써 『제주도방언집』이 해방 이후 최초의 작업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2. ‘제주어’ 명칭 사용

자료집이나 수필 등에서 ‘제주도방언’이나 ‘방언’ 또는 ‘지방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제주어’나 ‘제주도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이는 자

료집 서문의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석주명, 1947: 3)에 ‘돌입’을 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곧 석주명이 지니고 있는 언어에 대한 확호한 의식의 발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주명은 ‘제주어’인 경우, 『제주도방언집』의 어휘 배열은 ‘제주어’와 ‘표준어’로 항목을 구분하여 그 밑으로 해당 어휘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주도자료집』의 목차에서는, 『농업 관계의 제주어』, 『임업 관계의 제주어』, 『축산 관계의 제주어』, 『해산 관계의 제주어』 등 ‘제주어’가 겹으로 드러나게 사용하고 있다. 어휘 나열인 경우는 어김없이 ‘제주어’를 항목 명칭으로 쓰고 그 아래로 제주 어휘를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주명이 ‘제주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냥 붙인 명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방언집』 ‘서’의 “8월 15일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 하는 구절이나 “Gilliéron이 불란서 언어지도” 등의 언급(석주명, 1991: 80)이 그가 갖고 있는 언어 의식과 관련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방언’(方言)은 변두리 언어라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 주변 국가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우리나라인 경우도 ‘신라어’ 또는 ‘신라의 언어’를 ‘신라방언’이라고 하였으며, ‘고려어’를 ‘고려방언’이라 했던 것이다. ‘방언’이라는 명칭에서는 변방, 변두리, 중심 밖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요즘은 방언 대신에 ‘지역어’를 즐겨 써서 ‘경기 지역어’, ‘경상 지역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5년 제주도가 발간한 자료집 이름을 『제주어사전』이라고 명명만 바 있고, 2009년 그 후속 작업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라 표제어를 달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주어’를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로 정의하여 그 정의를 분명하게 하였다.

3. 남부어와 북부어의 구분

『제주도방언집』의 ‘일러두기’ 성격의 글에 따르면, “1 여기 수집한 말은 필자의 제주도 생활 2개년간에 도내각처에서 수집한 것이나, 주로는 애월면 출신 장주현(張周鉉), 서귀면 호근리 출신 김운남(金南雲) 양군의 조력”(석주명, 1947: 9)을 받았으나 “2 그러나 필자의 생활한 장소가, 서귀면 토평리이니 남부어가 비교적으로 많을 것이다.”(석주명, 1947: 9)라 언급하고 있다.

또 “3 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 3地方語로 다시 논할 수도 있고, 또 1地方語도 부락마다 다소 相違하니 세분한다면 끝이 없다. 그래서 편의상 上記의 兩君을 통하여 系統的으로 漢拏山을 중심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여 수집”(석주명, 1947: 9)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후기’(석주명, 1947: 136)에서도 “1 語彙 蒐集에 더 노력할 것. 더욱이 山北部 즉 濟州邑을 중심으로 한 北部語 蒐集에는 一層 노력할 것이다.”나 “2 일층 완성하려면은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수집하여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하여야 된다”라 적고 있기도 하다.

그가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는 것은 짧은 제주 체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산남(山南)과 산북(山北)의 문화 차이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언어는 사회의 반영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관·대정·정의로 나눈 삼현 분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언급들은 언어지리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5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한 생각이다. 그의 글 『국학과 생물학』 중 ‘4. 방언과 곤충’(석주명, 1991: 80-81)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 곤충상에 의한 육지 구분, 즉 곤충 분포에 따른 육지 구분은 인위적인 구분과도 도저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구분선은 대륙을 중단(中斷)도 하고 소지역에 있어서도 행정구역과는 일치가 안 된다. 또 비교적 분포가 넓은 곤충 종류는 동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產地)에 따라 지방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방에 나는 같은 종의 곤충에 있어서도 그 종류의 개체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지방차와 개체 차이로 보아 공통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방 전에 경성대학 제주도시험장에 2개년여나 체재해 있었는데,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전공으로 하는 나비류를 종별로 지도상에 분포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방언에도 응용하여, 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Gilliéron이 불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아마 이런 생각이나 구상은 그의 나비 분포도 작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Gilliéron이 불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석주명 1991: 80-81)는 언급에 이르러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최근 김순자(2010)의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에서 제주어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도

동북방언(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제주도서북방언(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비양도), 제주도동남방언(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제주도서남방언(중문면, 안덕면,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등으로 하위 구분한 결과와 서로 통하는 견해로 보인다.

4. 제주어와 외국어 또는 다른 방언과의 비교

그는 『제주도방언집』에서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에서 ‘몽골어·중국어·만주어·일본어’와 비교하고, 그 이후에 『제주도자료집』에서는 『제주도방언집』에 제시된 ‘몽골어·중국어·만주어·일본어’ 외에 ‘마래어·비도어·안남어’를 추가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외래어에서 유래한 제주어’ 비교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자료집』	비고
몽고어	240/(251)	184/(190)	張慶燮·趙善一
지나어(중국)	53	31	"
만주어	22	16	"
일본어	50	49	
마래어	-	33	
비도어	-	15	
안남어	-	12	

비교언어학에서는 공통조어에서 분기되어 나온 언어라야만 비교 가능하다(차용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어나 마래어·비도어·안남어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또 비교 가능한 몽골어도 『제주도방언집』에서는 240개 어휘인데 비하

여 『제주도자료집』에 와서는 184개 어휘로 줄어들었고, 만주어도 22개 어휘에서 16개 어휘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아마도 확실한 음운론적·형태론적·의미론적 대응 없이 발음이 서로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하면 그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계통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어와의 비교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질하지 못할 일임에 분명하다.

몽골어인 경우는 내몽골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런 사실은 그의 글 『몽고인의 편상』에서 “…… 몽고통인 張君(아마도 『제주도방언집』에 언급된 張慶燮 씨인 것 같다)과 그의 義兄格인 蒙古人 趙金山 씨의 안내로”(석주명, 1991: 109) 내몽골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짐작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어’와 ‘다른 방언’과의 비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내용은 제2편 고찰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방언’과 하나의 다른 방언과의 비교, ‘제주도방언’과 2개의 방언과의 비교, 심지어 ‘제주어’ 가운데 ‘북부어’와 ‘남부어’를 대상으로 각 지방어와의 비교도 시도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구분	목차 이름	어휘 개수	비고
1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의 공통어	785	
2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의 공통어	859	
3장	제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	740	
4장	제주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274	
6장	제주도방언 중 전라도·경상도·함경도·평안도 등 諸 他의 방언과 일치하고 표준어와는 상이한 諸語	18	
7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의 공통어	125	
8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	106	

9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	91	
10장	제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46	
11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23	
12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19	
14장-1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	52	
14장-2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12	
14장-3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7	
14장-4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	5	

이런 사실은 『제주도방언집』 ‘서’에서 밝힌 “專門外인 筆者라도 共通方言을 %로 計算해보고도 싶었으나 자세한 것은 專門家에게 맡기고 하고 筆者는 그 傾向만 알 수 있는 것으로 滿足하기로 하였다.”(석주명, 1947: 3)고 술회하고 있긴 하지만 값진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5. 언어 수필 개척

『제주도방언집』 제3편 수필 첫머리에 “나의 만 2개년 간의 제주도 생활(1943~1945)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관하여 내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들을 적당한 제목을 붙잡아 수시로 카드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기중에서 제주도방언에 다소라도 관계된 것은 모두 뽑아서 이곳에 그 제목의 가나다 순으로 집록하기로 한다.”(석주명, 1947: 139)는 언급이 있다. 곧 언어 수필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제주도방언에 다소라도 관계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몇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값웃. 감물올린 옷인데 농민의 통상복은 다 이것이고 대단히 질기다. 질

길뿐만 아니라 더럽는 줄도 모르겠고 夏節에는 불지도 않고 또 입어 버릇 하면 기분도 좋다고 한다. ‘갈적삼’ ‘갈정뱅이’ ‘갈중이’ 등의 夏服은 대개 이 물을 올린 것들이다. ‘중이’는 ‘바지’ ‘고의’(袴衣)의 제주어.(1947: 140)

그년의 바람. ‘바람’은 ‘바람’의 제주어요 참 싫은 바람이 불 때에 하는 말로 陸地서면 ‘그놈의 바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로도 제주도의 女權을 짐작할 수가 있다.(1947: 144)

大門. 陸地에서 보는 大門이 아니다. 보통은 길든 짜르든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즉 ‘올래’가 있고 大門으로 볼 수 있는 제주어로 ‘쌀문’ ‘살채기’ 혹은 ‘이문’이라는 左右에 石板 혹은 木板을 세우고 ‘정문’이라는 막대를 삽입하게 된 것을 지나 집 앞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어로 ‘대문’이란 것은 ‘마루방문’이고 전연 다르다.(1947: 148)

마늘의 濟州語. 대산이, 곱대산이, 곱대산이, 곱다산이 등 많다. 이 ‘대산이’ ‘다산이’는 中國語 ‘따썬’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곱’ 혹은 ‘곶’의 意義는 분명하지 않다.

또 제주어로 ‘마늘’이라면 葱類의 總稱이고 또 ‘마농’이라고도 한다. 葱類中 보통 혼한 ‘파’는 ‘괘마농’ 혹은 ‘뽕이마농’이라 하고 ‘산달래’는 ‘드룻마농’이라고 해서 野葱의 뜻이고 其中 특히 큰 것은 ‘뽕마농’이라 한다.(1947: 151)

삼춘. ‘삼춘’의 뜻을 물론이요, ‘삼춘댁’보고도 ‘삼춘’이라면 되니 편리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삼춘’은 친밀한 어른의 호칭에도 광범위로 사용할 수가 있는 말이니 대단히 편리하다.(1947: 164)

생완. 生員에서 유래한 모양이고, 巫女가 남자 청년을 부를 때에 쓴다. 壯年에게는 ‘댁’이라고 부른다.(1947: 165)

소도리. ‘쏘개질’ ‘말질’ ‘말전주’ 등의 濟州語인데 ‘소도리질’ ‘소드리’ ‘소드리질’이라고도 한다. ‘말질하다’를 濟州語로 표현할 때는 ‘소도린다’ ‘소드린다’ 혹은 ‘소도리맛취다’라고 해서 제주도에는 극히 흔한 일이다.(1947: 165)

위 언급에서 보듯 ‘감옷’은 ‘감즙을 먹인 옷’이란 뜻이 강하다. 그래서 표제어를 ‘갈옷’이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갈물’을 올렸다면 당연히 ‘갈옷’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갈물’은 떡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붉은 천연 염료를 말한다. ‘그년의 브름’에서 女權을 짐작하고 있다는 점, ‘대문’을 ‘올래’와 관련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가옥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늘’의 분류와 ‘삼춘’의 광범위한 쓰임, ‘생완’과 ‘소도리’에서도 제주도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방언에 다소라도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과제

이제 석주명의 제주어 업적을 대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제주어와 외래어와의 비교 문제, 어원의 문제에 한한다.

1. 외래어와의 비교

제주어와 외래어와의 비교는 ‘몽골어·지나어(중국)·만주어·일본어’ 그리고 ‘비도어·안남어’ 등과 비교하고 있다. 비교언어학이 “祖語라는 공통의 근원으로부터 분화되었다고 생각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비교, 연구하거나, 혹은 이들의 祖語 再構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부문”(이정민 등, 1987: 185)이라 정의한다면 논의 대상은 ‘몽골어’와 ‘만주어’가 될 것이나 여기서는 ‘몽골어’에 국한하기로 한다.

‘몽골어’에 대한 석주명의 관심은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異國人에 接할 때마다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려고 애쓰는 自己를 恒常 發見한다. 내가 學窓時代에 外國語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것으로 果然 異國人과 意思가 통할가 하고 疑問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異國人과 만나서 학습했던 것이 所用이 될 적처럼 愉快한 일도 적었다. 말수보다 손짓이 더 많을수록 意思가 통할 때의 기쁨은 더욱 큰 것이었다. 사람은 그 風俗과 言語가 다를지라도 人間性에는 共通點이 많아서 서로 無言間에도 通하는 수가 있다. 나는 自己가 專門으로 하는 것 關係로 여러 곳으로 旅行하는 機會를 갖는데 가는 곳이 처음일수록 또 異國風의 地方일수록 더욱 興味를 갖게 된다.(1992: 109)

그의 글 『몽고인의 편상』에 따르면, 1940년 내몽골에 갔을 때 중학교 제자로서 성공한 몽골통인 張慶君과 그의 의형격인 蒙古人 趙金山 氏의 안내를 받으며 3일간 유람했다. 여기 張慶君과 趙金山 氏는 『제주도 방언집』에 언급된 張慶燮과 趙善一인 것 같다. 이 두 사람은 몽골어는 물론 지나어(중국어), 만주어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석주명, 1947: 127).

몽골어 자료는 『제주도방언집』(1947: 127-130)과 『제주도자료집』(1971: 142-148)에 수록되어 있다. 전자가 ‘원자료’라고 한다면 후자는 ‘수정 자료’이다. 특히 후자는 유고집으로 출판된 것이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어휘 수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된소리를 ‘ㅅ’된소리로 표기되지 않은 점, 손뚝뚝속 속 한자어가 한글로 바뀐 점, 문장을 다듬은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간전이/이마에 흰줄이 코까지 있는 말 → 이마에 흰줄이 코까지 있는 말
- 피염시나 → 피염시나
- 솔솔 → 꿀꿀
- 꿈본다 → 꿈본다
- 글투다/닭이가 産卵의 姿勢를 取하다 → 닭이 産卵의 姿勢를 取하다
- 다위/토끼사냥의 뜻 → 토끼사냥의 뜻
- 후두두(俄雨) → (소낙비소리)
- 매매(子牛의 啼聲) → (송아지의 우름소리)
- 자작자작(幼兒의 步狀) → (아기의 걷는 모양)
- 줄줄(流淚의 狀) → (눈물 흘리는 모양)
- 쿨쿨(寢狀) → (잠자는 모양)
- 웅(重物의 落下音) →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 너울너울(大鳥의 飛狀) → (큰새의 나르는 모양)
- 텅(空中의 狀) → (속빈 모양)
- 휘이(追鷄聲) → (닭쫓는 소리)
- 획(大風音) → (큰바람소리)

석주명이 제시한 몽골어 목록에 대하여 이기문(李基文) 교수는 “제주도에는 元 나라 때에 목장이 있었으므로 그 방언에는 몽고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전해져 있다. 石宙明(1947: 127-130)은 이런 생각에 이끌린 듯, 몽고어와 관계있는 단어들을 열거하고 그 끝에 “以上과 같이 前篇에 記載된 7000餘個 中 蒙古語에 關係된 것을 拔記하면 實로 240에 達한다.”고 적고 있다. 이 목록은 앞으로 국어의 몽고어 차용어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대충 보아도 의문을 던져주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제시된 몽고어 단어들 중에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용 관계

를 설정하기 어려운 예들이 눈에 띈다. 대명사의 ‘나’, ‘너’와 몽고어 ‘미니’, ‘치니’(屬格形)의 연결, ‘이신 디’의 ‘디’와 몽고어 ‘디’(處格接尾辭?)의 연결, ‘저디’(저곳)와 몽고어 ‘나디’(칼가 nād인 듯, 몽고문어 nayadu)의 연결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말’(馬)과 몽고어 ‘모리’(mori), ‘아방’(父)과 몽고어 ‘아바’(aba), ‘어멍’과 몽고어 ‘어머’(eme)는 차용어가 아니라 同源語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목록에는 ‘蒙古式 地名’이라 하여 ‘가소름, 가시낭봉오지, 간드락’ 등 20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무어라 말하기조차 어렵다. 이 목록에는 말에 관한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小倉進平(1930, 1934)을 참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들의 대부분이 ‘濟州島 方言中 滿洲語와 關係 있는 것’(131)에 다시 보임도 위의 사실에 말미암은 것이다.”(이기문, 1991: 168)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기문 교수의 지적처럼 얼른 일별만 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어휘들은 몽골어와 관련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방언을 포함하여 몽골어 차용 어휘는 50~60여 어휘에 불과하다. 그것도 말(馬), 군사, 매(鷹) 이름 등에 집중된 상황이고 보면 자료집에 제시된 240개(실제 제시된 어휘는 251개 어휘임)의 어휘는 너무 많다.

- ㄱ부 - 가마귀ᄃᄂᄃᄂ, 가시낭봉오리, 갱글랑갱글랑, 골, 골ᄃᄂᄃᄂ, 괴우다, 뵈염시냐, 뵈우라, 꺾-꺾-, 꺾다, 꺾다, 솜본다, 굿사라, 꺾팡, 꺾외, 꺾마리, 꺾마리썰, 글투다, 기여, ᄃᄂᄃᄂᄃᄂ, ᄃᄂᄃᄂᄃᄂ, ᄃᄂᄃᄂᄃᄂ
- ㄴ부 - 나, 남소왕이, 너, 능화지, ᄃᄂᄃᄂᄃᄂ, ᄃᄂᄃᄂ, ᄃᄂᄃᄂᄃᄂ, ᄃᄂᄃᄂᄃᄂ
- ㄷ부 - 디슴, 대걸룻, 대정제완지, 데썩불다, 데씨다, 데썩락, 두루루
- ㅁ부 - 마농, 마농대, 마농썰, 마농땡가리, 마농적, 마농지이, 마울르다, 마피다, 맴매, 맴맴, 멘, 멘 썩다, 멘판, 맴막맴막, 모에제완지, 물오

름, 밋밋, 밋밋넘다

ㅂ부 - 박, 버버버, 부둑부둑, 부렁이, 부섭, 빅, 빙

ㅅ부 - 새 | ㅇ이마농, 선, 설러불다, 소본, 소잉이, 손또매, 소잉이, 쇠출, 수악거리다, 수악수악하다, 수악줄라지다, 술락, 술락튀다, 슬러분다, 솔오름

ㅇ부 - 안카름, 앓다, 액객운다, 어려려려, 읍밤제완지, 옷밤제완지, 왕상, 왕상하다, 이디, 이디저디, 이신디, 이엿싸

ㅈ부 - 자글자글, 잘잘, 저디, 제완지, 제한지, 제환지, 제환지덤벌, 짐녕

ㅊ부 - 체다, 체여지다, 출, 춤소잉이, 춤제완지,

ㅋ부 - 칼칼웃는다, 쿠롱쿠롱, 킨킨, 킨킨하다

ㅌ부 - 탕, 탕탕, 텀블랑, 통

ㅍ부 - 포롱포롱, 푸드득, 푼다푼다, 푼쉬

ㅎ부 - 호우, 확확, 흑, 흥, 헛헛헛면

몽골어로 제시된 어휘들에는 의성어와 의태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굿사라’는 ‘비켜라’라 하는 뜻이라면 몽골어로는 ‘jayilah’가 될 것이며, ‘눔쎄’(무)의 몽골어는 ‘cayan manjin’, ‘마농’의 몽골어는 ‘sonyin’ 또는 ‘sarmis’이다. ‘부섭’은 『훈민정음』 ‘용자례’에 나오는 ‘브섭’(브섭爲籠)으로, 이를 몽골어로 표현한다면 ‘yal tuɣuɣan’이 될 것이다.

또 ‘소본’은 한자어 ‘소분’(掃墳)으로, “오랫동안 외지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친부모의 산소에 가서 성묘하던 일”을 말한다. ‘손또매’의 ‘또매’는 일본어로 ‘뉘음’의 뜻을 지닌다.

2. 어원의 문제

어원의 문제도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다. 그 본보기로 ‘비바리’와 ‘심방’ 두 어휘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비바리’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비바리. ‘계집애’, ‘치녀’ 등의 濟州語로 口調가 좋으니 유행시켜도 좋을 것 같다. ‘비바리’를 알잡아 부를 때는 ‘비발년’이라고 한다.

‘비바리’에 대해서 既婚婦人은 ‘냉바리’라고 하는데 ‘냉바리’는 표준어로 ‘냉과리’의 뜻이니 재미있는 표현이다.(1947: 162)

짱과 비바리. 濟州語로 뼈(骨)를 ‘짱’, 處女를 ‘비바리’라고 하는데 나는 年來로 이 두 말의 어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지금 겨우 억지로라도 그와 비슷한 말을 구하였기에 기록해 두겠다.

짱-꿏(廣東語)

비바리-妣髮: 범부레(벤골州的 印度語) (1971: 26)

위 내용으로 본다면 ‘비바리’의 어원은 인도어 ‘범부레’, 한자 표현으로는 ‘비발’(妣髮)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알잡아 부를 때는 ‘비발년’”이 된다.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다 보면 한자어 ‘비발’(醜醜)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아마 꽃다운 나이인 ‘방년’(芳年)에 이끌리어 ‘향기 날 비’(醜), ‘향기날 발’(醜)이라는 한자어를 찾은 것 같다.

‘비바리’는 ‘비+-바리’로 분석 가능한 어휘로, ‘비’가 무엇인지를 밝히면 문제는 풀릴 것이다. 12세기 초 고려시대 어휘집인 『계림유사』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전복을 ‘必’이라 한다”(鰓曰必)는 구절과 “머리 빗는 빗을 ‘필’이라 한다”(梳曰苾音必)는 구절이 있다. 또 『조선관역어』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비’를 ‘必’”(雨曰必)이라 한다는 구절도 보인다. 이들을 종합하면 한자어 ‘必’은 ‘비’ 또는 ‘빗’으로 읽을 수 있다. 전복 따는 창을 ‘비창’이라 한다거나, 전복의 암컷을 ‘암빗’이라 하고 수컷을 ‘수빗’이라 하는 데서도 ‘비’ 또는 ‘빗’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바리’는 “몇몇 뿌리에 붙어서 그 뿌리가 뜻하는 성질이 두르러지게 있거나 그러한 정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붙는 접미사(『우리말큰사전』), “(명사에 붙어)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국어비속어사전』)의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어 ‘비바리’는 {비}+{-바리}로 분석되며, {비}는 ‘전복(鰓)’을 뜻하고, 접미사 {-바리}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가치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바리’의 원래 의미는 ‘전복을 따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며, 이런 작업은 주로 물질 기량이 뛰어나고 기운이 센 처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①‘해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다가 그 의미가 축소되어 ②‘처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심방’과 관련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首神房. 무당은 濟州島서는 ‘심방’(神房)이라고 한다. 神房에는 男女가 있고 오히려 男 神房이 많은 편이고 물론 세력도 강한 것이 陸地와는 相異하다. 首 神房이란 물론 문자대로의 意義를 가진 것이다.(1947: 166)

심방. 濟州語로 무당의 뜻으로 男女가 다 될 수가 있고 대개는 世襲的 직업이고 賤民에 속한다. 비록 요새는 巫事를 금지하여 潛行的으로 되었으니 심방의 數가 적지만 과거에는 其 수가 대단히 많았고 處處에 神堂도 상당히 많았다. 어느 집이나 一年 一次의 굿을 아니한 집은 없었다니 其盛事는 지금이라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1947: 168)

심방의 명칭: 村山智順氏에게 의하면 尋訪(shin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유래하였고 神房은 僧房이 轉한 것 같다 하고 이 名稱은 咸北, 濟州島 等地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 ‘심방’이고 또 ‘神房’이 咸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咸北 어느 地方인지 알 수가 없다.(1947: 168)

심방. 陸地の ‘무당’의 뜻이고 男女가 다 있어 世襲的 職業이며 賤民에 속한다. 村山智順氏에 의하면 ‘尋訪’(shin pang)은 ‘神房’(shin pang)에서

유래하였고 ‘神房’은 ‘僧房’이 轉한 것 같다고 하고 이 名稱은 咸北, 濟州島 등지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 쓰이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분명히 ‘심방’이고 또 ‘神房’이 咸北에서 쓰인다고 하나 咸北 어느 지방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語源은 同音語인 馬來語의 simbang(不可信의 뜻)일 것으로 생각된다.(1968: 54)

이를 종합하면 ‘심방’은 ‘불가신’(不可信) 뜻을 지닌 마래어 ‘simbang’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마래어’는 ‘말레이시아어’를 말하는 것이니 ‘심방’의 어원을 너무 멀리서 찾은 것 같다.

15세기 후반에 『능엄경』을 언해한 자료인 『능엄경언해』가 있다. 이 책 8권 117면 ‘巫祝’의 협주에 따르면, “巫는 겨집 심방이오 祝³⁾는 男人 심방이라” 한다는 것이다. ‘심방’이라는 어휘가 15세기에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늬뻤’의 어원은 몽골어에서 찾고 있다.

늬뻤. ‘무’의 濟州語요 蒙古語에서 유래했다는 것보다 蒙古語 그대로이다. 濟州島에는 其外에도 別稱이 약간 있다. 즉 무수(移入語), ㄴ물(밭에 있는 무), 츨늬물=츨마귀(어린무)(1947: 147)

늬뻤. ‘무우’의 濟州語이고, 蒙古語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外에도 약간의 別稱이 있다. 즉 ‘무수’는 移入語, ‘ㄴ물’은 밭에 있는 무우, ‘츨늬물’이나 ‘츨마귀’는 어린 무우이다.(1968: 22)

이 두 언급에서 ‘늬뻤’의 어원은 몽골어임을 밝히고 있다. 앞에서 언급

3) 祝의 음은 [추] 또는 [주]로 읽어야 하는데 이는 보조사 ‘ㄴ’이 연결된 데서 알 수 있다. 『전운옥편』(1796)에서는 [추] [축], 『자전석요』(1909)에서는 [추] [축], 『신사전』(1915)에서는 [주] [축]으로 읽고 있다.

한 대로 ‘늬뻬’(무)의 몽골어는 ‘cayan manjin’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제1집)의 설명이 실마리를 풀어준다. “늬뻬(菁根) ‘무우’의 뿌리만을 일컫는 말”(1962: 196)에서 ‘늬뻬’의 ‘늬’이 ‘나무’와 관련 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⁴⁾

또 눈에 띄는 것은 ‘늬뻬’의 표기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방언집』에서는 ‘ㅅ’ 된소리로 표기한 반면 『제주도수필』에서는 된소리 ‘뻬’을 쓰고 있다. 더욱 특이한 것은 ‘무’와 ‘무우’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蔔’의 뜻으로 『제주도방언집』에서는 현재 표준어와 같은 어형인 ‘무’를 쓴 반면, 이 방언집보다 나중에 출간된 『제주도수필』에서는 예전의 표준어인 ‘무우’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IV. 결론

석주명의 ‘제주도총서’ 가운데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수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주명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방언 자료집을 발간한 점과 어휘 나열을 가나다 순으로 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해방과 더불어 ‘먼저 우리말을 찾’고자 하여 『제주도방언집』을 출간하게 되고, 나아가 ‘제주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또한 높이 살 만하다. ‘제주어’를 남부어와 북부어로 구분한 점, ‘제주어’와 외국어, 나아가 제주어와 다른 방언을 비교한 것, 언어 수필을 쓴 것 등에서 그 의의를

4) 현평효(1985: 275-276)는 『제주도방언의 ‘나무’와 ‘나물’ 어사에 대하여』 논문에서, ‘나무’와 ‘나물’이 재구형인 ‘*나’ 또는 ‘*ㄴ’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골어’나 ‘만주어’ 또는 ‘일본어’와의 비교 연구는 가능하나 ‘지나어’(중국)를 비롯하여 ‘비도어’와 ‘안남어’까지 비교한 것은 비전공자로서 범할 수 있는 오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몽골어와의 비교에서도 의성어나 의태어, 지명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비바리’, ‘심방’, ‘늪뻘’의 어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는 후학들이 검증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긴 하였지만 다각적으로 제주어를 연구한 선구자적 의의는 자못 크다.

참고문헌

『능엄경언해』

『몽어유해』

강영봉(1996),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강영봉(2003),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5집, 영주어문학회.

김동언 편저(1999). 『국어비속어사전』, 프리미엄북스.

김순자(201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용후(1960), 『제주도방언연구』, 동원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석주명(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석주명(1991), 『나비 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문(1998), 『어학의 경계를 넘어』, 『새국어생활』 8-2 · 여름, 국립국어연구원.

이병철(2002), 『석주명평전』, 그물코.

이정민 · 배영남(1987), 『언어학 사전』, 박영사.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에서의 ‘나무’와 ‘나물’ 어사에 대하여』,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小倉進平(1934), 『朝鮮語に於ける外來語』, 『小倉進平博士著作集』(4, 京都大學國文學會)에 재수록.

白鳥庫吉(1929), 『麗史に見えたる蒙古語の解釋』, 『東洋學報』 8-2.

몽골국립대학교한국어학과(2003), 『한몽사전』, 2003.

Clauson, G(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Lessing, F.D(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Mostaert, A(1941-1944), *Dictionnaire ordos*, Peking.Poppe, N(1938), *Mongol'skij Slovar' Mukaddimat al-Adab*, Moskva.Ramstedt, G. J(1935), *Kalmückisches Wörterbuch*, Helsinki.Сүхбаатар. О(1997),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 н Толь*, Улаанбаатар.

Abstract

The Significance and task of the Study of Jeju Dialect
by Seok, Ju-myeong

Kang, Young-Bong*

This report focuses on the significance and task of the study of Jeju dialect based on *Jeju Island Dialect*, *Data of Jeju Island* and *Jeju Island Essays* which are parts of *A Series of Studies on Jeju Island* by Seok, Ju-myeong.

He first published a book on dialect as Korean and used a term 'Jeju Language'. Moreover he divided 'Jeju language' into Southern and Northern Jeju language and compare with other foreign languages. He also wrote some essays on Jeju language. These are why his study is so important and how deeply he was eager to find our language after liberation.

As a matter of comparative linguistics, he compared Jeju language with other languages instead of Mogolian and Manchu which are Altaic and it showed his limitation not as a specialist. Etymologies of 'bibari', 'simbang' and 'nomppi' are incorrect as well. These errors are pointed out in this report so it suggests a new task we should take care of.

Seok, Ju-myeong, as a pione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Jeju language in many ways even though he left many tasks we have to solve and demonstrate.

* Professor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

Key Words

Jeju language, Seok Ju-myeong, comparative linguistics, etymology, Mogolian, Jeju culture.

교신 : 강영봉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bong2715@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1. 12. 09.

심사완료일 2012. 02. 01.

계재확정일 2012. 02. 13.